

“사찰음식 대중화에 일조하겠습니다”

2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57명 합격

올해 사찰음식 전문조리사가 57명 배출됐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숫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조리사 자격증을 받은 57명은 사찰음식 대중화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제2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과정은 총 11명이 응시했다. 심사위원으로는 1차 필기에 적문·정관 스님과 신봉규 한국요식산업연구소장, 2차 실기에 대한·우관 스님과 성기협 대림대 호텔조리과 교수가 참여했다. 1회 시험에는 24명이 응시해 20명이 합격했다.

이 자리에서 단장 성효 스님은 “지난해에 비해 응시자와 합격자가 대폭으로 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점차 전문과

정을 활성화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찰음식을 알리는데 나서자”면서 “아울러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 정규강좌 고급반을 이수하거나 사찰음식 전문위원 스님의 강좌를 1년 이상 이수하고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사찰음식 관련 특화사찰 실무자를 비롯해 전문강사, 문화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등 우대 채용의 기회가 주어진다. 3회 자격시험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봄 찾아 떠나는 남한산성 사찰림 탐방

사찰림연구소, 19일 개원사·망월사 등 순례

봄 꽃 소식을 고대하는 3월, 사찰림을 탐방하는 행사가 열린다.

(사)한국사찰림연구소는 오는 3월 19일 남한산성 개원사·장경사·망월사와 사찰림을 탐방하는 사찰림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찰과 숲에 관심있는 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사찰림연구소 박희준 사찰림탐방 단장(대진대 생명과학과 겸임교수)의 사찰 숲의 생태와 식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남한산성 성곽길과 사찰 숲을 걷는다. 또 한국사찰림연구소 전문 숲해설가와 문화해설사도 동행해 불교와 숲, 사찰과 사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번에 탐방에 나서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에 대비해 증축한 산성으로 신라가 쌓은 주장성을 활용한 것이다. 남한

산성 내에는 승병을 양성하는 9개의 사찰이 있었으며, 이 사찰들을 북사사(北四寺) 남오사(南五寺)라 한다.

이번 남한산성 사찰림 탐방에서는 9사 중 남아있는 3개 사찰을 순례하고 남한산성의 중심 산인 청량산 일대의 사찰림 모습을 살펴보고, 남한산성 내 전체 식생면적 중 20%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는 송림을 살펴본다. 참가비는 15,000원.

한편, (사)한국사찰림연구소는 2013년 창립한 산림청 등록 민간 사찰림연구기관으로 ‘공사유림산림습윤조사사업’ 등 연구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사찰림탐방단 운영을 통해 사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찰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010)9058-7734

신성민 기자

문화재 보존과학 40년, 결실을 만나다

국립중앙博, ‘보존과학’ 주제로 특별전

보존과학은 문화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학문분야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국립박물관에서는 1976년 보존과학이 시작돼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이 같은 보존과학의 성과와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3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를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보존과학 40년을 맞아 열리는 전시회는 지난 40년간의 박물관 보존과학의 역사를 조명하고, 보존과학의 역할과 성과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박물관 보존과학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보존처리된 문화재 중 대표적인 문화재 57점을 선보이며, 문화재의 재료와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보조물 60여 점도 활용된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된다. 프롤로그에서는 박물관 보존과학 초창기의 보존처리 활동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이뤄졌다. 이곳에서는 국보 제127호 금동관음보살입상, 보물 제366호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외함 등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통해 박물관 보존과학 초창기의 국보급 문화재 복원과정과 유물과 당시의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는 보존과학이 여러 종류의 재질에 따라 전문분야가 세분화됐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만하여도 한 사람이 2~3종류 이상의 재질을 담당했다”면서 “지금보다 시설과 장비,

전문성이 부족했지만 우리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컸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1부 ‘우리 문화재의 재료와 기술을 보다’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해온 현대과학기술의 도입과 응용의 결과물을 통해 과학의 발전이 문화재 보존과학에 미친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금속·도자기·서화·목재·석재 등 각 분야별 대표적인 재료들을 소개한다. 그 재료를 가공하여 제작한 문화재들의 실물과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5월 8일까지 문화재 57점 전시 5부로 구성... 성과·역할 소개 금동관음상·감은사 사리외함 등 국보·보물급 문화재 대거 선보

다. 대표적으로 금속의 누금과 주조기술, 도자기류의 동화·철화·청화기법, 서화의 배제법, 목공예품의 나전기법 등 우리문화재 속에 숨어있는 전통기술을 유물과 전시보조물을 함께 구성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 조사 연구에 X선, 적외선, 자외선 등 ‘빛’을 이용한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면서 문화재의 전통기술 연구에 많은 성과를 이룬 시기”라고 말했다.

2부 ‘병든 문화재를 치료하다’에서는

최근에 보존처리된 유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곳에서는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의 최대성과 중 하나인 신라금관총 ‘이사지왕 대도’ 등 최근의 보존처리 성과물들의 처리 과정을 유물과 처리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시실 내부에 보존처리실을 재현해 지금까지의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화재 치료 과정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것도 볼거리 중 하나다.

3부 ‘문화재의 생명을 연장하다’에서는 최근 보존과학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박물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금속문화재의 부식, 직물류 피해 등 문화재에 해를 끼치는 요인들에 대해 박물관은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에필로그에서는 이번 전시에 소개하지 못했지만 보존과학 역사에서는 중요한 국보·보물급 문화재들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당시의 보존처리 기록을 아카이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시 기간 중 주중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전시해설을 운영한다. 주말에는 초등학생 중에서 선발한 ‘미래의 보존과학자’가 어린이들 눈으로 이해한 보존과학 해설(1일 1회, 오후 2시)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일에는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오후 7시)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해설을 접할 수 있다. (02)2077-9000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 제127호 금동관음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에 전시된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유망전시회 선정

전시진흥회 4일 공고... 불교 분야 인정 첫 사례

불교의 전통산업 시장 확대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목표”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불교박람회)가 2016년 유망전시회로 선정됐다.

(사)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3월 4일 발표한 공고에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정 결과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불교가 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이자, 불교박람회가 전통문화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전시회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불교는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적 접근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산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정은 의미가 각별하다.

현재 ‘전통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수립·진행 중인 박람회가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시는 불교박람회가 유일하다. 이번 유망전시회 선정에 따라 불교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5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불교박람회 사무국은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게 불교이며, 소비자와 공급자가 자생력을 가지고 산업군을 형성



지난해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모습.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016 유망 전시회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가 불교문화 산업”이라며 “이런 이유로 전통문화산업군에서도 불교박람회가 가장 눈에 띄

게 인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개발해서 국내 전통문화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해외시장의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질 좋은 업체들을 양성해 전통문화상품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전통문화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불교박람회의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3월 24~2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마음이 쉬는 공간’을 주제로 한국불교의 불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각종 산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통문화의 장이 될 전망이다.

신성민 기자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긴급 모객 상품

출발일 : 4월 15일

서안 / 낙양 / 화산 5일

동참비 : 129만원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천불 천탑의 신비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뵈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4대 불산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오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연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라-바라나시-보드기아-나란다-리조기르-바이살라-쿠시나카르-룸비나-스라바스타-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한탈레-담블라-시그리야-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한탈레-담블라-시그리야-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그리야-플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한탈레-담블라-시그리야-플론나루와-미탈레-캔디-콜롬보-룸바이-바라나시-보드기아-리조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카르-스라바스타-룸비나-카트만두-나가르코트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라싸-양드록초-간체-시계체

티베트 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정체-시계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트만두-파루-림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림푸-파루-카트만두-나기르코트

동티베트 9일
성도-문천-미얼강-통달(오명불화엄)-백목(아침스)-간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 직역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권)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